

의복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감성연구

김 유 진 · 이 경 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Sensibility of Formative Properties in Clothing Design

You Jin Kim · Kyoung Hee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0. 1. 10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sual sensibility and the decorative design of clothing. 41 kinds of costume samples have been selected from photographs in fashion magazines under detail and trimming, and divid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line, shape, and form.

I have measured these images by using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The obtained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ANOVA, discriminant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MD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

1. Factor analysis has extracted five factors which consist of decorative design sensibility. These factors are Attractiveness, Hardness and Softness, Rhythm, Decorativeness, Cuteness.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isual evaluation of decorative design and demographics 3. The discrimination among formative designs was closely related to decorative image, especially between line and form. 4. The Image effect on Preference, Buying needs, Riches and Pleasant was consist of complicated sensibility. 5. Evaluative dimensions of decorative design were identified by Simple-Complicated, Cubic-Plane perceptive image differed in degree of similarity in spite of same formative design.

Key words: decorative design, formative property, line, shape, form; 장식적 디자인, 조형적 특성, 선, 형태, 형

I. 서 론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물질적 풍요로움에서 정신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의식변화는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감성으로 연결되고 있

다(이구형, 1998). 감성은 제품의 외형에 의해 지각, 인지되는 외적인 내용과 소비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인 내적인 내용까지 포함할 뿐 아니라 제품의 최종용도에 적합한 특성에 기인하므로 다양한 소비자의 감성을 디자인에 반영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감성과 정서의 측면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이미지가 많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의복에서는 실용성이나 경제성을 바탕으로 소재, 품질의 고급화 및 쾌적성이 추구되는 한편 소비

* 이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일부 지원되었음.

자의 미의식에 영향을 주는 감성적 측면의 의복이 미지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의복이미지는 의복의 유형, 선, 재질, 색상, 디테일 등 고유의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 요소들로 형성된 의복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말한다. 그 중 시각디자인의 조형적 요소로서 형과 형태는 선과 공간의 효과가 복합되어 표현된 것으로 흥미를 끌어내고 심리적 분위기와 착시를 표현하기 위한 잠재력을 가진다.

의복디자인의 요소들은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지므로 의복이미지와 함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감성을 이해하는 것은 보다 심미감을 고려한 의복디자인의 개발과 개개인의 감성 만족에 필요할 것이다. 특히 디자이너의 내면세계를 의상을 통해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오늘날의 패션은 주름장식, 드레이프, 패딩 등 장식적 디자인의 조형적인 형태미에서 시각적인 자극과 매력을 보이며, 의복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잘 조화된 장식적 디자인은 심리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복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의복의 실루엣, 재질, 색상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선(line), 형(shape), 형태(form)의 조형적 특성은 주로 의복디자인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네크라인과 칼라, 슬리브 등과 관련하여 착시현상에 대해 고찰하거나 전반적인 의복이미지 속에서 디테일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다양한 장식적 디자인의 감성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테일과 트리밍을 중심으로 선, 형, 형태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감성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는 의복의 심미성을 고려한 감성디자인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연구

1. 의복이미지와 조형적 특성

의복은 인체에 착의되어 그 형태미가 나타날 때 조형예술의 한 특징을 지니며 심미적 가치가 중시된다.(神山進, 1986) 의복은 선, 형태, 색, 재질, 디테

일 등에 대한 개별의 지각이 하나로 통합되어 전체적인 의복이미지를 형성하므로 이런 시각적인 조형 요소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상호관련을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선은 두 점을 실제 연결하거나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경우의 암시된 선을 의미한다. 가장자리로서의 선은 바로 인접해 있는 형과 관련되며 형은 표면 특징과 무관하게 경계가 이루어진 영역 혹은 명확한 윤곽선으로 지각된다. 이와 같은 2차원의 형에 깊이를 강조하여 3차원인 형태를 이룬다.

선, 형, 형태의 조형요소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의복의 외곽선을 형성하는 실루엣을 중심으로 다른 요소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거나, 패턴에 있어서 다양한 선의 시각적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오현정(1989)은 조형미와 유행이 의복의 미적 평가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연구하여 조형요소가 의복의 미적 평가에 더 영향을 미치며 조형요소 중에서도 선/스타일, 색, 무늬, 옷감, 세부장식 순으로 영향력이 있음을 밝혔다. 이경희(1991)는 의복형태에 따라 H, A, V, X-line의 실루엣으로 구분하여 그 의미구조가 매력성, 실용성, 품위성, 편안성, 경연성 요인으로 구성됨을 밝히고 실루엣은 의복 디자인 보다 강한 이미지를 지니고 의복디자인은 디테일에 의해 시각적 효과가 완화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차미승(1992)은 4종류의 실루엣과 색채이미지의 관계에서 의복의 편안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는 의복형태에 영향을 받으며 딱딱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는 의복 형태와 색채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문삼련·이경희(1994)는 4종류의 실루엣과 물방울무늬의 공간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에서 현시적 측면은 물방울 무늬의 공간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활동성과 대담성은 의복의 형태적 차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선의 효과에 대해서 이경희·박정순(1990)은 의복의 다이어트와 절개선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분할선을 구성함으로써 선을 이용한 디자인이 어깨와 가슴, 허리, 힙 등 인체의 착시효과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경희·윤정혜·박정순(1991)은 원피스 드레스 줄무늬의 시각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흑백 줄무늬의 굵기와 방향을 달리하

여 인체의 비례를 보다 더 좋게 보여줄 수 있는 줄무늬를 제안하였다. 류정아·임원자(1993)는 허리선과 스커트의 헴라인, 프린세스 라인 등 의복디자인의 선이 체형에 미치는 착시효과에 대해 연구하면서 수직선, 수평선, 사선이 의복에서 시각적인 착시현상을 일으키지만 디자인 변인을 강하게 사용할수록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高森壽(1994)는 수직, 수평의 줄무늬가 있는 원피스 드레스의 길이에 대한 착시와 인상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줄무늬의 방향은 수직, 수평적인 인체 길이의 인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밖에 정삼호·강혜원(1991)은 의복의 디자인 특성을 허리선의 위치, 상의 길이, 허리선 분할 면적의 크기, 목둘레선의 형태, 선의 형태, 간격, 방향, 장식선의 분량으로 나누고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의 선호를 알아보았으며 신장, 비만도의 신체적 조건과 연령은 선의 유형 선호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의복의 선, 형, 형태의 조형요소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솔기과 의복무늬에 의한 선, 네크라인, 실루엣, 주머니, 라펠, 주름 등의 형의 변형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은 대부분 구조적이거나 기능적인 것으로 장식적인 디테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복이 인체에 입혀졌을 때 평면의 2차원적인 형이 장식적 혹은 구조적으로 통합되어 나타나는 전체적인 이미지와 같은 디자인일지라도 조형적인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감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

의복의 미적 감성은 의복 전체를 나타내는 실루엣과 부분을 나타내는 디테일, 트리밍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장식적 디자인이란 맞춤새나 의복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의복의 외관만을 위한 디자인으로 의복의 일부로 구성되는 디테일과 완성된 의복의 표면에 부가되는 트리밍으로 구체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장식성에 있다.

지금까지 장식적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디테일과 인체와의 착시효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테일에 있어서도 장식적 측면 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네크라인과 칼라, 소매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최정·이경희(1996)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칼라와 슬리브의 조합에 대한 착시효과와 이미지를 연구한 결과 경연성, 활동성, 매력성, 용모성 요인의 의미구조를 밝혔으며 의복지각에 있어 슬리브보다 칼라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이미정·김준범·이인자(1997)는 네크라인과 칼라, 스카프의 의복디자인 요소에 의한 얼굴지각의 착시현상에 대해 연구하면서 V자의 파임이 있는 복잡한 네크라인 선에서 얼굴은 더 커보이고 칼라의 크기가 클수록 얼굴이 커보인다고 하였다.

디테일과 트리밍의 장식성에 대한 연구로는 디테일이 의복이미지를 구성하는 많은 디자인 요소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거나 디테일을 제한하여 소재 등을 변화시킴으로서 시각적 효과를 알아보는 것으로 연구되어왔다. 渡近澄子·川本榮子·中川早苗(1993)은 의복이미지를 구성하는 디자인 요소를 알아본 결과 의복이미지는 캐주얼성, 현시성, 세련성, 경제성, 새로움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캐주얼성의 경우 상의의 디테일인 프릴, 포켓, 버튼 등의 세부장식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李京姬·李慶姬(1993)은 다양한 소재의 트리밍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알아본 결과 장식성, 세련성, 단정성 요인의 의미구조를 밝히면서 트리밍의 종류, 방향, 폭에 의해 시각적 이미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디테일과 트리밍 등의 장식적 디자인이 착용자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착시효과를 이용하여 체형에 적합한 디자인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형태의 의복에서도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의 구성과 변화에 의해 시각적 감성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각의 세부적 디자인이 가지는 두드러지는 시각적 효과와 의복 내에서 장식적 디자인이 갖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성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복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미적 감성을 알아보려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의 구성요인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의 시각적 이미지 차이를 알아본다.

2-1. 조형적 특성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차이를 알아본다.

2-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시각적 평가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의복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판별이미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의복디자인의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을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5. 의복디자인의 포지셔닝과 평가차원을 알아본다.

2. 측정도구

1) 자극물 구성

본 연구의 자극물은 Collections를 비롯한 국내외 패션잡지(1995년~1999년)를 통해 최근 패션에서 많이 보이는 장식적 디자인을 조형적 특성에 따라 선, 형, 형태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장식적 디자인은 의복의 기능, 맞춤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관만을 위한 디자인으로 의복 구성선, 봉제방법, 소재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도 의복구조의 한 부분을 이루는 칼라, 네크라인, 소매 등의 디테일은 제외시켰다.

자극물 선정을 위해 의류학 전공자 14명에게 각 자극물의 실루엣, 칼라, 소재, 디테일 등 의복디자인 요소에 따른 시각적 우선권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디테일과 트리밍에 대해 시각적 우선권이 높게 나타난 의복디자인을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선, 형, 형태에 따라 각 그룹당 14장씩 총 42장의 사진 자극물을 모델과 배경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얼굴 등을 제외시켜 회색지에 부착한 사진자극물로서 실험하였다. 42장의 자극물은 선, 형, 형태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선과 형의 구분

이 모호한 한 장의 자극물을 제외하고는 88% 이상의 적중률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41장의 자극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척도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를 구성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의류학 전공자 70명에게 자유언어연상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형용사의 빈도를 중심으로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의 복합 감성을 평가하기 위한 형용사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반의어와 함께 27쌍의 형용사로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였다. 평가 용어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836로서 내적 일관성이 높게 검증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부산시내 거주하는 20대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부산지역의 상권에 따라 1999년 7월 12일에서 7월 25일 사이에 일대일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AS, SPSS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분산분석 Duncan test, 판별분석, 다중회귀분석, 다차원척도법(MDS)으로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이미지의 구성요인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에 따른 구성요인을 밝히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보기좋은-보기싫은, 좋아하는-싫어하는, 사고싶은-사기싫은, 어울리는-어울리지않은 등의 11쌍의 형용사로 구성되었으며 매력성 요인이라 하였다. 요인 2는 부드러운-딱딱한, 감성적인-이성적인, 세시한-섹시하지않은 등의 6쌍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경연성 요인이라 하였다. 요인 3은 과장된-과장되지않은, 화려한-수수한, 풍성한-빈약한 등의 5쌍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장식성 요인이라 하였다. 요인 4는 강한-약한, 현대적인-고전적인, 동적인-정적인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율동성 요인이라 하였다. 요인5는 귀여운-성숙한, 발달한-점잖은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귀여움 요인이라 하였다. 이상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에 대한 5개의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60.08%로 5개의 요인

<표 1>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명과 허용사상	요인부하치
요인 1. 매력성 요인	
보기좋은-보기싫은	0.873
좋아하는-싫어하는	0.842
사고싶은-사기싫은	0.839
어울리는-어울리지않는	0.809
매력있는-매력없는	0.788
고급스러운-고급스럽지 않은	0.763
유패한-불패한	0.724
우아한-천박한	0.715
세련된-촌스러운	0.710
깨끗한-지저분한	0.646
재미있는-재미없는	0.480
고유치: 7.560 전체변량(%): 28.0 공통변량(%): 46.7	
요인 2. 경연성 요인	
부드러운-딱딱한	0.679
감성적인-이성적인	0.674
섹시한-섹시하지않은	0.657
여성적인-남성적인	0.636
시원한-답답한	0.602
대담한-무난한	0.588
고유치: 3.560 전체변량(%): 13.2 공통변량(%): 22.0	
요인 3. 장식성 요인	
과장된-과장되지않은	0.623
화려한-수수한	0.607
풍성한-빈약한	0.591
편안한-불편한	-0.528
단순한-복잡한	-0.749
고유치: 2.173 전체변량(%): 8.0 공통변량(%): 13.3	
요인 4. 울동성 요인	
강한-약한	0.675
현대적인-고전적인	0.653
동적인-정적인	0.597
고유치: 1.544 전체변량(%): 5.7 공통변량(%): 9.5	
요인 5. 귀여움 요인	
귀여운-성숙한	0.779
발랄한-점잖은	0.571
고유치: 1.380 전체변량(%): 5.1 공통변량(%): 8.5	

중 매력성 요인과 경연성 요인은 공통변량의 68.7%를 차지하여 의복의 의미공간 내에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요인 1의 매력성 요인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매력

성, 평가성을 요인으로 명명해 온 것과 같이 의복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서 石加純子, 加藤雪枝, 槇山藤子(1987), 嶋本槇子·加藤雪枝(1994)의 평가인자, 李京姬(1991), 문삼련(1993), 차미승(1992), 李慶姬(1994) 이은령(1995)의 매력성 요인과 유사하게 평가되었다. 요인2의 경연성 요인은 李京姬(1991), 최정(1995)의 경연성 요인에서 부드러운, 여성적인 등의 구성요소와 유사하게 평가되었다. 요인 3의 장식성 요인은 李京姬(1991)의 실용성 요인, 김유진(1997)의 무난성 요인과 유사하게 평가되었고 대부분의 의복이미지가 실용성과 무난함으로 의미구조를 형성한 반면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은 이와는 반대되는 의미구조를 나타내었다. 요인 4의 울동성 요인은 박혜선(1982)의 역능 요인, 문삼련(1993)의 현시성 요인과 유사하게 평가되었다. 요인 5의 귀여움 요인은 문삼련(1993), 김희정(1993), 이은령(1995)의 성숙성 요인과 정인희·이은영(1992), 홍병숙·정미경(1993)의 젊음 요인, 하수진(1999)의 귀여움 요인과 유사하게 평가되었다.

이상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에 대한 의미구조는 대부분 의복이미지의 중요한 차원인 매력성, 경연성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장식성, 울동성, 귀여움의 측면으로 더욱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의복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차이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의 선, 형, 형태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시각적 평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은 선, 형, 형태에 따라 5개의 요인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장식성 요인과 울동성 요인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매력성 요인과 경연성 요인에서는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이 선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것이고 부드러운 것으로, 형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고 딱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식성 요인에서는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이 형태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장식적인 것으로 선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장식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

〈표 2〉 조형적 특성에 따른 시각적 평가차이

특성 요인	선(line)	형(shape)	형태(form)	F-value
매력성	0.199 ^a A ^b	-0.137 B	-0.07 B	144.77***
경연성	0.155 A	-0.143 C	-0.022 B	31.27***
장식성	-0.358 C	-0.155 B	0.502 A	327.68***
울동성	0.291 A	-0.043 B	-0.251 C	110.79***
귀여움	-0.158 C	-0.059 B	0.213 A	53.18***

^a Means of Factor Score

^b Multiple Comparison of Duncan ***p<.001

동성 요인에서는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이 선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울동적인 것으로 형태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울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여움 요인에서는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이 형태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귀여운 것으로 선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귀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식적 디자인의 선, 형, 형태에 따른 이미지의 차이를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시각적 우선권과 조형미를 고려한 감성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시각적 평가차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중·후반이 20대 초반보다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을 더 귀엽고 발랄하게 평가하였다. 직업에 따라서는 주부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른 직업보다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을 더 귀엽고 발랄하게 평가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장식성과 귀여움 요인에서 유의적인 평가차이를 보였는데 고학력일수록 더 장식적이고 귀엽게 평가한 반면 저학력일수록 보다 덜 장식적이고 덜 귀여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부산대앞, 서면, 광안리, 광복동의 상권에 따라서는 매력성과 장식성, 울동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부산대앞과 서면상권이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을 더 매력적이고 장식적이고 울동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결혼 유무에 따른 평가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인 중 귀여움 요인은 주로 개인적인 속성인 연령과 학력, 직업과 관련되어 연령과 학력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같은 디자인일지라도 더 귀엽게 평가함을 알 수 있고, 장식성 요인은 평가자의 개인적 속성보다 상권의 특성과 유행을 반영하는 지역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부산대와 서면상권이 더 장식적인 것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시각적 평가차이는 감성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지역과 환경, 문화속에서 공유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복 디자인 있어서도 개

〈표 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시각적 평가차이

인구 통계적 특성 요인	연령				교육수준					상권				F value
	20대 초반	20대 중반	20대 후반	F value	고졸 이하	대학 재학	대학 중퇴 및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	F value	부산대 앞	서면	광안리	광복동	
매력성										0.011 B	0.107 A	-0.040 B	-0.078 B	6.73***
장식성					-0.104 C	0.028 B	-0.035 B/C	0.160 A	6.65***	0.036 A	0.067 A	-0.087 B	-0.015 A/B	4.82**
울동성										0.090 A	-0.010 B	-0.068 B	-0.011 B	4.50**
귀여움	-0.066 ^a B	0.037 A	0.085 A	8.26***	0.001 B/C	-0.063 C	0.078 A/B	0.175 A	8.10***					

^a factor score ***p<0.001 **p<0.01

〈표 4〉 의복디자인의 판별이미지

	Function 1	Function 2	Wilks' Lambda	F-Value	Hit-ratio(%)
유패한-불쾌한	1.212 ^a	1.277	0.580	13.767 ^{***}	80.5
복잡한-단순한	1.025	-0.560	0.496	7.774 ^{***}	
어울리는-어울리지않는	2.101	-2.013	0.424	6.439 ^{***}	
현대적인-고전적인	0.636	0.739	0.329	6.513 ^{***}	
고급스러운-고급스럽지않은	1.364	2.402	0.273	6.207 ^{***}	
보기좋은-보기싫은	-4.505	-0.815	0.234	5.879 ^{***}	
판별함수의 기여율(%)	91.1	8.9			

^a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p<0.001

인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 뿐 아니라 개인의 의식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요소 등을 고려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개성과 차별성을 중시한 일품중소량생산 시대인 오늘날 개개인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의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의복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판별 이미지

선, 형, 형태에 따른 의복디자인을 판별하는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형적 특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27쌍의 이미지를 독립변수로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7개의 의복이미지 중 6개의 이미지가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판별하는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5%의 적중률을 보였다(〈표 4〉).

전체변량의 91.1%를 설명하는 판별함수 1의 판별 계수를 살펴보면 보기좋은-보기싫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어울리는-어울리지않는, 고급스러운-고급스럽지않은, 유패한-불쾌한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은 단순히 형태의 시각적인 인지에서 뿐 아니라 유패한, 고급스러운 등의 복합적인 감성에 따라 선, 형, 형태의 특성이 판별됨을 알 수 있다.

조형적 특성을 세분화하여 단계적 판별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선, 형의 특성을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계수를 살펴보면 현대적인-고전적인, 깨끗한-지저분한, 편안한-불편한의 순으로 나타났고 77.8%의 적중률을 보였다. 형과 형태를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계수는 풍성한-빈약한으로 나타났으며 70.4%의 적중률을 나타내었다. 선과 형태를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계수는 복잡한-단순한, 편안한-불편한으로 85.7%의 적중률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보면 선과 형의 판별은 선이 둘러막히거나 면적으로 지각될 때 구별되는 것

〈표 5〉 의복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판별이미지

		Function 1	Wilks' Lambda	F-Value	Hit-ratio(%)
line-shape	현대적인-고전적인	1.227 ^a	0.781	7.015 [*]	77.8
	깨끗한-지저분한	-0.765	0.585	8.516 ^{**}	
	편안한-불편한	0.672	0.503	7.575 ^{**}	
	판별함수의 기여율(%)	100			
shape-form	풍성한-빈약한	1.000	0.726	9.431 ^{**}	70.4
	판별함수의 기여율(%)	100			
line-form	복잡한-단순한	1.139	0.509	25.079 ^{***}	85.7
	편안한-불편한	-0.732	0.437	16.113 ^{***}	
	판별함수의 기여율(%)	100			

^a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p<0.001 **p<0.01 *p<0.05

으로 선의 두께와 방향성, 형과 공간의 평면적인 특성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형과 형태의 판별은 의복에 있어 2차원과 3차원의 공간에 대한 판별로서 단순히 윤곽이 아닌 입체감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선과 형태의 판별은 그 사이에 형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보다 두드러진 판별력을 보이며 의복디자인의 장식성 요인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4.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자신의 기호와 선호에 따른 디자인의 욕구는 단

순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도를 묻는 수준이 아니라 생활 문화 속에서 그 제품의 이미지가 어떤 감성요소로 표현되는지, 구체적인 감성요소를 특징지을 수 있어야 한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14개의 독립변수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5 수준 이상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는 사고싶은-사기싫은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보기좋은-보기싫은, 매력있는-매력없는, 어울리는-어울리지않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자인에 대한 선호가 바로 구매욕구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구매욕구에는 11개의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표 6〉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독립변수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	
	Beta	T-value	Beta	T-value	Beta	T-value	Beta	T-value
보기좋은-보기싫은	0.223	13.433***	0.3111	8.249***	0.207	11.378***	0.166	8.442***
좋아하는-싫어하는			0.3592	3.993***	0.047	2.816**	0.072	3.994***
사고싶은-사기싫은	0.327	23.574***			0.094	-5.811***	0.075	4.311***
어울리는-어울리지않는	0.114	8.006***	0.073	5.086***			0.078	4.745***
매력있는-매력없는	0.161	11.044***			0.113	7.284***		
고급스러운-고급스럽지않은	0.039	2.864**	0.085	6.024***				
유패한-불패한	0.051	4.003***	0.062	4.634***				
우아한-천박한			0.038	2.740**	0.2361	5.973***	0.046	2.915**
세련된-촌스러운	0.032	2.602**	0.049	3.978***	0.087	6.554***	0.131	9.195***
깨끗한-지저분한	0.036	2.851**			0.092	6.667***	0.128	8.219***
재미있는-재미없는							0.060	4.481***
감성적인-이성적인			-0.025	-2.781**				
섹시한-섹시하지않은							0.057	4.251***
여성적인-남성적인					0.025	2.085*	0.096	6.916***
시원한-답답한	0.050	5.134***					-0.042	-3.132**
대담한-무난한							-0.027	-2.171*
과장된-과장되지않은	-0.023	-2.166*	-0.029	-2.589**	0.038	3.090**		
화려한-수수한	-0.030	-2.796**			0.093	7.260***		
풍성한-빈약한					0.044	3.788***		
편안한-불편한			0.076	7.228***	-0.025	-2.294*	0.061	4.967***
단순한-복잡한			0.021	2.781*			-0.036	-3.049**
동적인-정적인	0.030	3.168*			-0.044	-4.121***		
현대적인-고전적인	-0.036	-3.879***			-0.034	-3.329***		
귀여운-성숙한					-0.052	-4.333***	0.059	4.546***
발랄한-점잖은	0.032	3.077**			-0.068	-5.812***	0.054	3.327***
R ²	69.65		69.08		58.96		80.5	

***p<0.001 **p<0.01 *p<0.05

것으로 나타났으며 .05 수준 이상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좋아하는-싫어하는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보기좋은-보기싫은, 고급스러운-고급스럽지않은, 편안한-불편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는 주로 매력적 측면과 관련된 반면 구매에 있어서는 편안한, 단순한, 무난한 등의 실제 착용상황을 고려한 의복이미지까지 다양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고급감은 세분화된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높은 수준의 제품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간의 감성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미적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급감에 대해서는 16개의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5 수준 이상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우아한-천박한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보기좋은-보기싫은, 매력있는-매력없는, 화려한-수수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에 있어서의 고급감은 사용자 스스로가 보기 좋고 세련되게 느끼는 개성의 표현이며 이는 곧 선호와 구매욕구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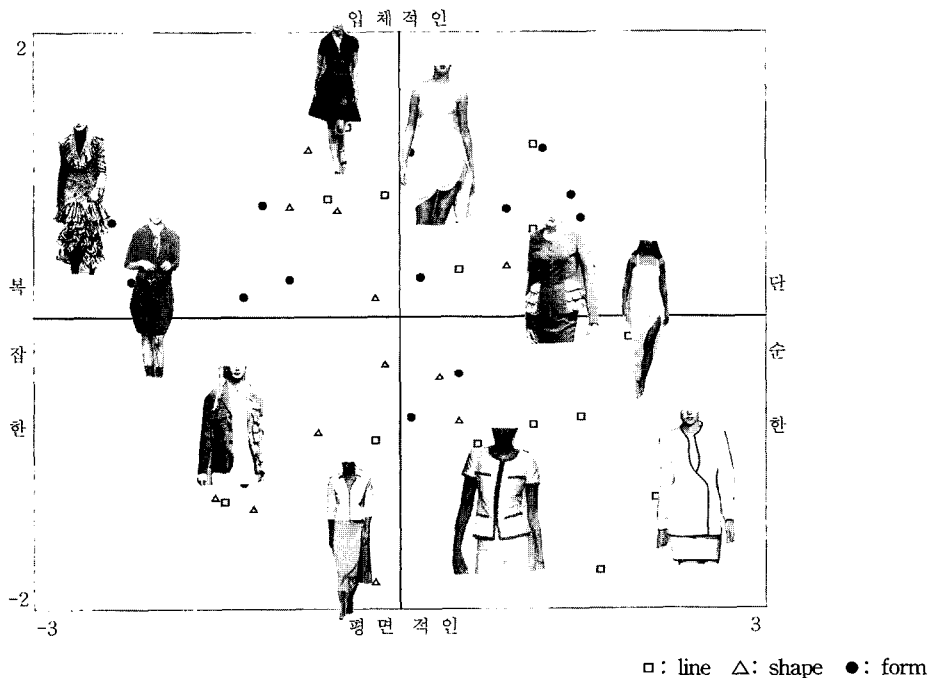
쾌감에는 16개의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5 수준 이상에서 유의적인 상관을 보였다. 보기좋은-보기싫은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세련된-촌스러운, 깨끗한-지저분한, 여성적인-남성적인, 어울리는-어울리지않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쾌감은 제품에 대해 갖게되는 보다 고차원적인 복합감성으로 재미있는-재미없는, 발랄한-점잖은과 같은 이미지와 관련되어 의복을 통한 유패함, 즐거움의 경험이 쾌감과 직접 연결됨을 알 수 있다.

5. 의복디자인의 포지셔닝

의복디자인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차원적 도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포지셔닝된 의복디자인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극물로서 각 자극물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유클리드 값이 양 혹은 음의 방향으로 비교적 큰 값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이미지 차이가 두드러지는 의복 디자인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와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Kruscal의



[그림 1] 의복디자인의 포지셔닝

stress값과 결정계수값(RSQ)을 조사하였으며 2차원에서 stress .153과 89.8 %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조형적 특징에 따른 장식적 디자인은 포지셔닝된 위치와 디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X축은 「단순한-복잡한」의 축으로, Y축은 「입체적인-평면적인」의 축으로 명명하였다. 장식적 디자인이 선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 대부분 X축의 양의 값에 위치하여 단순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장식적 디자인이 형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 대부분 X축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선과 형의 장식적 디자인은 Y축 상에서는 고르게 분포되었다. 장식적 디자인이 형태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 대부분 Y축의 양의 값에 위치하여 입체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고 X축 상에서는 고르게 분포되었다. 따라서 선에서 형으로의 조형적 특성의 변화는 4/4분면을 시작으로 단순한, 평면적인 이미지에서 형태의 특성이 강조됨에 따라 3/4분면인 복잡한, 평면적인 이미지를 지나 다시 단순한, 입체적인 이미지로 변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사분면에 대한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면 1/4분면(단순한-입체적인)은 러플, 레이스, 셔링, 플라운스 드레이프 등의 주름장식 디테일로 구성되었으며 팽택, 모피의 트리밍, 실버 등의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소재와 색을 볼 수 있다. 주로 슬림하거나 몸에 잘 맞는 디자인으로 포지셔닝 되었다. 2/4분면(복잡한-입체적인)은 보우, 개더, 프린징 등의 디테일로 입체감을 강조하거나 디테일을 과장하여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러쉬, 스모킹, 셔링으로 상의 전면을 모두 구성하여 편편한 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3/4분면(복잡한-평면적인)은 흰색, 검정, 브라운을 중심으로 낮은 색조로 구성되고 있으며 포켓, 퀴팅, 패치워크, 버튼, 스티치 등과 같은 장식적이지만 다소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디테일로 포지셔닝 되었다. 4/4분면(단순한-평면적인)은 슬림한 실루엣과 동시에 브레이드, 슬릿, 턱 등의 직선적인 디테일과 트리밍으로 구성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의 의미구조를 살펴본 결과 이미지의 구성요인은 매력성, 경연성, 장식성, 율동성, 귀여움의 5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변량의 60.08%를 차지하였다.

2. 의복의 장식적 디자인의 조형적 특징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차이는 선, 형, 형태에 따라 5개의 요인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고 매력성, 경연성 요인에서 선의 특성이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것으로, 장식성 요인에서는 형태의 특성이 가장 장식적인 것으로, 율동성 요인에서는 선의 특성이 동적인 것으로 귀여움 요인에서는 형태의 특성이 귀엽고 발랄하게 평가되었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장식적 디자인의 평가차이를 살펴보면 귀여움 요인은 주로 개인적 속성인 연령과 학력, 직업에 의해, 장식성 요인은 상권과 유행 경향 등의 지역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평가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의복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시각적 우선권과 조형미를 고려한 감성 디자인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인구통계적 특성을 고려한 개인의 감성 만족이 마케팅 전략수립시 더욱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의복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판별이미지는 보기좋은-보기싫은, 어울리는-어울리지않는, 고급스러운-고급스럽지않은, 유행한-불패한의 순으로 나타나 복합적인 감성에 따라 선, 형, 형태가 판별됨을 알 수 있다. 선과 형의 장식적 디자인의 판별이미지는 현대적인-고전적인, 깨끗한-지저분한, 편안한-불편한으로 나타났고 형과 형태의 판별 이미지는 풍성한-빈약한으로, 선과 형태의 판별 이미지는 복잡한-단순한, 편안한-불편한으로 판별됨을 알 수 있다. 선과 형태의 판별은 그 사이에 형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보다 두드러진 판별력을 보이며 의복디자인의 장식성 요인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4. 선호도, 구매욕구, 고급감, 쾌감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는 많은 이미지의 복합감성으로서 다양하게 구성됨을 알 수 있으며 디자인에 대한 선호와 고급감은 곧 구매욕구로 연결되고 디자인을 통한 쾌

감은 즐거움의 경험과 직접 관련됨을 알 수 있다.

5. 의복디자인을 포지셔닝된 위치와 디자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복잡한」의 X축과 「입체적인—평면적인」의 Y축으로 평가차원이 구성되었고 같은 디자인 요소일지라도 선, 형, 형태에 따라 시각적 이미지가 지각되는 유사성에는 차이를 보였다. 선에서 형으로의 조형적 특성의 변화는 단순한, 평면적인 이미지에서 형태의 특성이 강조됨에 따라 복잡한, 평면적인 이미지를 지나 다시 단순한, 입체적인 이미지로 변화함을 나타내므로 조형적 특성요소를 보다 세분화하여 활용한다면 개개인의 감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유진·이경희(1997). 상반되는 의복이미지의 조합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297-1306.
- 김희정·이경희(1993). 의복자극물과 제시방법에 따른 시각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7(3), 589-599.
- 류정아·임원자(1993). 의복디자인 선이 체형에 미치는 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1(3), 589-599.
- 문삼련·이경희(1994). 의복형태와 물방울무늬 공간변화에 따른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8(1), 3-14.
- 오현정(1989). 의복의 미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91).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박정순(1990). 의복디자인 선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 이경희·윤정혜·박정순(1990). 원피스 드레스의 줄무늬 시각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4(4), 314-323.
- 이구형(1997). 감성공학과 감성공학을 응용한 섬유제품개발, 섬유기술과 산업, 1(2).
- 이미정·김준범·이인자(1997). 의복디자인 요소변화에 의한 착시현상이 얼굴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287-1296.
- 이은령·이경희(1996). 실루엣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31-646.
- 정인희·이은영(1992). 의복이미지의 구성요인과 평가차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4), 379-392.
- 정삼호·강혜원(1991).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연구(I), 한국의류학회지, 15(2), 103-113.
- 최정·이경희(1996). Collar와 Sleeve변화에 의한 의복의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computer simulation을 이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0(5), 915-929.
- 차미승(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수진(1999). 브래지어 디자인에 대한 시각적 감성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3(5), 635-644.
- 高森壽(1994). 縞柄衣服のみかの長さや印象, 일본가정학회지, 45(1), 47-53.
- 神山進(1986). 服裝美の感性と類型, 섬유소비과학지, 27(9), 367-394.
- 渡近澄子·川本榮子·中川早苗(1993). 服裝におけるイメージとデザインの關聯について(제2보)—이미지による類型化とそのデザインの特性—, 일본가정학회지, 44(2), 131-139.
- 石加純子, 加藤雪枝, 梶山藤子(1987). 各種デザインにおける着裝イメージ, 일본가정학회지, 38(4), 321-332.
- 嶋本栞子·加藤雪枝(1994). 個性における着裝イメージ表現, 일본가정학회지, 45(7), 321-332.